

‘티베트 자유’에 세계 관심 집중

지관 스님 “평화적 타협을” 교계단체 “무력중단” 촉구

티베트 독립시위에 대한 중국의 유혈진압 사태가 날로 악화됨에 따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와 불교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티베트 사태를 조기 해결하기 위해 병력을 대거 증강하고 있으나 시위는 중국내로 확산되면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티베트 망명정부는 3월 20일 중국내 티베트인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며 쓰촨(四川)성에서만 시위대 3~5명이 총격으로 사망하고 1000여 명이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3월 10일 티베트 라싸에서 열린 시위 장면. <자료출처:freelibtibet.org>

달라이라마법왕 동아시아대표부 사무소 락파 추고 대표는 유혈사태 직후인 3월 17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티베트 사태에 대한 한국불교의 관심을 요청했다. 락파 대표는 “티베트 사태는 지난 60년간 이어져온 중국의 억압이 폭발한 것”이라며 “달라이라마 성하는 안정과 통합은

대화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폭력에 의한 폭동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으며, 최선을 다해 중국 정부에 대화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지관 스님은 “이번 사태가 평화적으로 타협해서 원만히 잘 끝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락파 대표는 “한국불교계와 불자들의 관심과 기도를 바란다”며 “한국 불교계에서 이번 유혈사태의 희생자들을 위한 전도재를 봉행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불교계 단체들도 “무력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

서를 잇달아 발표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는 17일 성명을 내고 “중국정부에 의한 자행된 티베트의 무력진압과 유혈사태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더 이상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티베트 국민들의 요구를 대화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건)는 18일 성명에서 “중국은 지금이라도 티베트인들에 겨는 총칼을 거두고, 과거의 야만을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유엔은 속히 진상조사단을 파견해 티베트에서 자행된 학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덧붙였다.

조계종 중앙총회도 3월 20일 열린 176회 총회에서 티베트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중국정부는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여수령 기자

특별칼럼

티베트 독립...멀고도 험한 길

현재 중국 정부의 강경책으로 유혈 사태를 겪고 있는 ‘티베트’는 사람들에게 상반되는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불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이들은 티베트와 달라이 라마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고 “한 번 가보고 싶고, 읽고 싶어 하는” 동경의 대상이다. 불교학자와 수행자들은 티베트인들이 여러 세기 동안 발전시켜온 독특한 수행체계에 찬사를 보내며, 우리 미래 불교의 활로를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로 삼고자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티베트 독립(혹은 자립)을 주장하는 달라이 라마와 망명 정부는 “중국의 대국화를 견제하려는 미국 정보기관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극단적 생각을 펼치기도 한다.

이 상반된 주장들, 티베트를 둘러싼 이종적 이미지는 나름대로 이유와 배경이 있다. 그래서 더욱 티베트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

중국에서 “티베트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 청(淸)나라 시대에 새로 달

라이라마가 즉위하면서 청 황제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티베트뿐만 아니라, 조선(朝鮮)·월남(越南)·유구(琉球)를 비롯한 중국 주변 국가들 모두가 이런 형식적 절차를 거쳤는데, 이것은 오늘날 ‘새 정부 승인’이나 ‘대통령 당선자의 특사 파견’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이 곧 현재 중국의 주장을 100% 정당화해줄 수는 없다.

청나라 시대 티베트의 경우에는 오히려 조선이나 월남 등과 다른 특별한 예우를 받았던 사실(事實)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티베트 불교에 귀의한 청 황실에서는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를 ‘스승’으로 모시고, 새 황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의 관정(灌頂)을 통해 자기들의 세속 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청과 티베트의 관계는 중세 서양의 로마 교황청과 세속 군주들 사이의 관계와 상당 부분 흡사한 것으로, 일방적 주종(主從)이 아닌 상호 보완(相互補充)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티베트와 중국 사이의 이런 균형은, 아편 전쟁 이후 청나라가 약화되어 가면서, 영국으로 대표되는 해양 세력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고 남아시아에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 여러 정책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거문도 점령사건을 일으켰던 영국은 같은 이유에서 티베트의 완전 독립을 유도하고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영국, 나중에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티베트의

독립을 지원하는 것은 티베트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국의 정치 경제적 이유 때문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티베트 독립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지금 티베트 문제는 중요한 국면에 놓여 있다. 곳곳에서 위기의 징조가 보이고 있다. 과거 인도는 중국을 견제할 필요에서 티베트 망명 정부를 받아들였고, 난민들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국제 정세가 변화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갈등 관계가 화해 무드로 바뀌면서 티베트 문제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당나라 시절 인도로 구별 순례를 다녀와 수많은 불교 경전을 번역한 현장(玄奘)의 순례 코스를 답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불교를 통한 중국과 인도 사이의 오랜 유교 관계를 강조하였다. 얼마 전에는 인도에서 조성한 불상을 서안의 백마사(白馬寺)에 봉안하면서 인도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고 중국 고위층이 직접 “우리는 과거 인도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다”고 언급할 정도로 인도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이

에 대한 화답으로 인도 정부 또한 도시계획을 이유로 인도 내 티베트 인들을 거주지에서 몰아내고 과거보다 훨씬 철저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국제 정세가 이처럼 티베트에 점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데다가, 티베트를 찾는 외국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티베트 내에 상당한 지하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국 정부의 ‘티베트 영구 점령 의지’는 더욱 강해지게 되었다.

막다른 고비에 놓인 티베트 민족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 과거 당 왕조를 곤혹스럽게 했던 호전적 성격을 회복해 무장 투쟁에 나설까? 중국의 유혈 탄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자비’를 내세우며, 선처를 바랄까? 아무도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과거 강대국들의 세력권 나누기에 희생양이 되어 고통을 겪었던 우리들은 연민의 마음(慈悲心)을 갖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유한 언어와 독특한 전통 문화를 가꾸어 온 티베트 민족의 미래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티베트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은 과거의 우리 얼골일 뿐만 아니라, 가깝거나 먼 미래에 다시 겪을 수도 있는 고통일지도 모른다.



이병두 자유기고가

東大 경주캠퍼스에 공자아카데미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손동진)는 3월 19일 경북 지역 최초로 중국 정부가 설립한 중국어 전문교육 기관인 공자아카데미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자아카데미는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추진하는 아시아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된 것으로 중국 상해외국어대학교와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중국 정부로부터 교수파견, 학술서적, 운영 경비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중국어를 비롯해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자아카데미는 중국 정부가 중국어와 문화 보급을 목적으로 전세계에 설립하는 중국어 전문 교육기관이다. 2004년 11월 세계 최초로 설립된 서울공자아카데미를 시작으로 현재 66개국에 227곳이 개설돼 있으며 동국대 경주캠퍼스 공자아카데미는 국내 13번째이자 경북 지역에서는 처음이다. 김주일 기자

“목조문화재 방재 시스템 구축”

문화재청을 업무계획 발표 내년까지 사찰 목조문화재에 경보장치 및 진화장치 등이 완비된다. 이견무 문화재청장은 3월 19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목조문화재방재 시스템 구축과 문화재 조사 절차 간소화 등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보·보물 등 국가 지정 목조문화재(사찰 포함)와 궁궐과 왕릉과 같은 전국 144개 문화유산에 대한 방재시설을 설치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문화재조사 절차도 간소화하겠

다는 것이 이 청장 발언의 요지다.

이 청장은 “올해는 경보장치 및 수동소화 설비를 완비하고, 내년에는 자동진화 설비까지 설치하겠다”고 말해 승려문화재 방재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를 마련 중임을 밝혔다. 시설설비뿐 아니라 경비인력도 투입된다.

이 청장은 “2인 1조 이상으로 구성된 주야간 감시인력을 사찰 등에 있는 중요 목조문화재와 궁궐, 왕릉 등에 배치할 것”이라며 병무청 등과 협의해 사회복무 인력을 배정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동성 기자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집을 깨끗이 청소하는 물걸레 로봇청소기 **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 제품 구입 1588-7402

소비자가격 : ₩ 275,000

www.mamirobot.co.kr

Mamirobot (주)경민에이테크닉스 NAVER 지식쇼핑 마미로봇

불교TV 방배동 이전 범위

최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사옥으로 이전한 불교TV가 4월 1일 오전 10시 30분 이전 범위를 봉행한다.

방배동 사옥은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로 무상사 법당은 지상 1층에, 시민선방은 지상 2층에 마련된다. 3~8층에는 스튜디오와 종합편집실 등 방송본부가 들어선다. 여수령 기자

능인정사 이웃돕기 일일차집

서울 능인정사(주지 법경)는 3월 2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건대문화관 옆 솔바람 커피 일일차집을 연다. 매년 3월 어려운 이웃, 소년소녀가장, 난치병 환자를 돕기 위해 작은 인연의 만남을 맺어온 능인정사의 일일차집은 올해도 다섯 번째다. (02)3436-5268 김주일 기자

조계종 안양불교문화원 · 안양불교대학 신축불사 안내



중생 고통 보듬는 지장도량
엘리트 불자 육성 교육도량
이웃의 행복위한 행복도량

귀의 삼보 하옵고

지장선원 · 안양불교문화원 · 안양불교대학은 불타의 혜명과 조계종 중지를 봉대하며 불타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전범과 불자님들의 교육 및 사회 복지 사업을 위하여 신축불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극락정도 안양국에 세워질 도신속의 전범도량 신축불사에 무부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덕 지으시고 세계생생 부처님 품안에서 구경 선불하시기 바랍니다.

원불봉안 및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에게는 돌아가신 후 영구우패를 봉안하여 사십구재와 가제사, 명절차례를 세계생생 모셔드리며 공덕비에 이름을 새겨 매일 천도 기도해 드립니다.

- 동참방법 : 신축불사에 동참을 원하시는분은 안양불교문화원 사무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안양불교문화원 사무처 1588-1936 / 080-449-9500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401-248474 안양불교문화원 국민은행 620601-01-131405 지장선원 농협 170888-51-025398 안양불교문화원
- 홈페이지 : www.abccenter.or.kr
- E-mail : abccenter123@hanmail.net

□ 건축 개요

- ▷ 대지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12-10, 11, 12번지
- ▷ 대지면적 : 1260㎡ (382평) ▷ 총연면적 : 11,322㎡ (3,428평)
- ▷ 건물규모 : 지상 8층, 지하 5층 ▷ 건축기간 : 2008. 4월 ~ 2009. 9월

조실 지관 회주 세민 주지 현호 이사장 심정구 수석고문 이필상